서울신문

2022 평창평화포럼, 알펜시아에서 22일부터 사흘간

입력 : 2022-02-03 13:01 | 수정 : 2022-02-03 13:01

▲ 2021 평창평화포럼 개회식 모습. 강원도 제공

'2022 평창평화포럼'이 오는 22일부터 강원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일대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린다.

강원도는 평창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주최하고 2018 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평창평화포럼을 현장 참가 2000명, 온라인 참가 100만 뷰를 목표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포럼은 경제와 스포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UN SDGs), 평화 공공외교 등 모두 다섯 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을 비롯한 33개의 세션에 20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박채희 한국체육학회 국제이사가 좌장을 맡은 '동계스포츠과학센터의 효율적 운영

과 활성화 방안' 세션에서는 센터 필요성 및 전문성과 더불어 의·과학 중심의 연구, 'DNA-Platform'과 결합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평창 평화정신과 공공외교' 세션의 좌장은 이정옥 평창평화센터 이사가 담당하고 평창평화정신을 평화와 스포츠 및 공공외교에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사회주의 정치경제 근간에 자본주의 매개 변수를 절충하는 실험적 시도' 세션은 최민식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담당,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미한 수정주의적 시도를 중심적으로 다룬다. '평화도시 현황과 과제' 세션에서는 이성훈 평창평화센터 이사가 좌장을 맡아 제주와 부산, 고양시와 강원도 DMZ 접경지역 지자체의 평화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공동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최영훈 평창군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세션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2018 평창올림픽 유산과 평화도시 평창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